



## 궂감 빼먹기식 의회 인사교류 폐지하라!

2022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지난 1월 13일 용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때 우리 조합원은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 비상근무, 양대 선거사무로 고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집행부보다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진 의회는 인사권 독립전에도 뺄 없고 줄 없는 이에게는 선망하는 조직이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시는 작년 연말 2차례에 걸쳐 집행부 근무자를 상대로 의회 근무를 원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의회도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의회 잔류 또는 집행부 복귀에 관한 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기인사 뿐 만 아니라 7월 정기인사에도 의회와 인사교류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공모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의회에서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차출해서 데려가는 방식이었다. 더군다나 정기인사에 앞서 공모를 하였음에도 원하는 직원이 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계획에도 없던 2차 공모를 실시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적게는 5년 많게는 30년 동안 애써 훈련 시킨 집행부의 인재들을 마치 궂감 빼먹기 식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우리 조합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의회도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신규 채용하기를 바란다. 시도 그렇게 조직을 키워왔다.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오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고 본다.

몸은 의회에 있지만 머리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을 의회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바로 집행부와 의 인사교류를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 굳게 믿고 집행부도 이에 발맞춰 행동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용기있는 변화, 하나되는 노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